

미·중 '한반도 빅게임' 막 올랐다

폼페이오·시진핑 '8말9초' 잇다른 방북... 한반도 문제 개입 강화 북미간 '핵신고-중전선언' 맞교환 가능성에 시주석 행보 변수 될듯

격화일로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를 두고 복잡한 게임에 돌입한 양상이다. '포스트 6·12' 대북 협상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다음 달 '9·9절'을 기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예보'가 나왔기 때문이다.

8월9초(8월 말~9월 초)에 이른바 'G2' (주요 2개국)의 최고위층이 잇따라 평양을 찾는 셈이어서 주춤한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지만 정반대의 시각도 나온다. 패권경쟁에 돌입한 미중 사이의 역할적 대립구도를 고려할 때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관측이 교차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폼페이오 장관의 네 번째 방북 그

자체는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우여곡절을 겪어온 북미간 후속협상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先) 비핵화'나 '선(先) 중전선언'이나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북미가 물밑 조율을 거쳐 상당 수준의 접점을 찾았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서다.

이 자리에서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미 양측 사이에 '빅딜'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실질적인' 비핵화 초기 조치를 나서는, 미국은 북한이 희망하는 중전선언에 응한다는 시나리오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현재의 핵 활동을 중단하고 핵 물질·시설 리스트에 대해 신고·사찰을 허용하는 수준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응할 것인지도 최대 관심사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선 항공기의 안전

을 확인하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현장조사를 받아들여기로 합의했다는 교도통신의 보도는 이런 가능성에 기대감을 엿보였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얼마나 의미 있는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많다. 불턴 보좌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 시간표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초기 조치 이행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불턴 보좌관과 같은 강경파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당장 큰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미국이 좀처럼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현행 제재시스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난항을 예고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강도적인 제재 봉쇄로 우리 인민을 질식시켜보려는 적대 세력", "적대 세력들의 집요한 제재와 압살 책동" 등의 비난 발언을 퍼부어, 미국이 '큰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이번 협상도 순조롭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의 첫 평양행(行)은 가뜰이나 어려운 북미 비핵화 게임을 더욱 복잡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 주석이 취임 후 처음이자 중국 최고지도자로서는 13년 만에 방북길에 나서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공식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과 시 주석의 연쇄 방북 직후에는 국제 최고의 다자외교무대인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본격적인 선순환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계에서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폼페이오 방북-시진핑 방중-제3차 남북정상회담-뉴욕 유엔총회'를 전후한 김 위원장의 방미 또는 중전선언 성사 등으로 한반도 외교에 중요한 '굽이'가 형성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설득력 있게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46〉 명신 이필

이필(李泌, 722~789)의 자는 장원(長源)으로 본적은 요동 양평이다. 당 현종, 숙종, 대종, 덕종 등 4대에 걸쳐 출사한 당 중기의 명신이다.

어려서 재주가 많고 민첩하기로 유명했다. 하루는 현종과 문인 재상 장열이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장열이 그를 보고 방원동정(方圓動靜)이라는 시제를 주었다. 그는 "모난 것은 의(義)를 행함과 같고 둥근 것은 지(智)를 쓰는 것과 같으며, 움직이는 인재를 구하는 것과 같고 고요함은 뜻을 얻음과 같다"고 답해 재상을 놀라게 하였다. 현종은 그를 후일 숙종이 되는 충왕 이형의 놀이 친구로 삼았다. 충왕이 태자가 되자 조정으로 불러 교우 관계를 갖게 하였는데 태자는 그를 늘 선생이라고 불렀다. 훗날 장구령이 재상으로 있을 때의

산은 얻은 황금과 비단을 모두 분저지인 범양으로 보내는데 이것이 어찌 천하에 용거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안녹산이 아들 안경서에게 피살되고 당 조정에서는 환관 이보국이 권세를 휘둘렀다. 건녕왕을 모함해 죽였다. 이필은 이에 다음과 같은 글을 들어 사의를 표하였다. "신이 폐하를 만난 것이 매우 일찍이고, 신에게 맡긴 것이 아주 무겁고, 신을 총애한 것이 아주 깊으며, 신의 공로가 매우 높고, 공직이 아주 기이하니 신이 머물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후 호남성 형산에 머물렀다.

숙종이 762년 병사하자 태자 이숙이 대종으로 즉위했다. 대종은 이필을 정소해 봉대전 옆에 서원을 짓고 조정의 중요 인사를 상의하였다. 대종이 말하기를 "짐은 경에게 술과 고기를 먹게 하

직언 서슴지 않는 당대 최고의 신하

말했다. 장구령은 중신 엄정지와 소성과 친했는데 아침에 능한 소성을 더 가까이 하였다. 이를 지켜본 이필은 장구령에게 "재상께서는 평민 출신으로 입신하신 분인데 아부하는 인물만 좋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직언했다. 장구령이 정중히 사과했다.

안녹산이 난을 일으키자 현종이 장안을 비우고 사천으로 피난갔다. 태자 이형은 756년 감숙성 영무에서 숙종으로 즉위했고 내각적인 행재소(行在所)를 설치했다. 숙종이 재력이 뛰어나고 덕망이 있던 아들인 건녕왕 이담을 천하병마원수로 삼아 반군을 치도록 하였다. 이에 이필은 후일 대종이 되는 형 광평왕 이숙이 있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건녕왕이 공을 세울 경우 형제간에 갈등이 심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숙종은 광평왕을 천하병마원수로 삼고 이필을 시모군국·원수부행군장사로 삼았다. 그는 황제에게 건의하기를 "청컨대 먼저 신과 광평왕이 논의한 후 조용히 상주하면 옳은 것은 행하고 옳지 않은 것은 그치십시오." 그는 각지에서 날라온 상소문을 읽고 긴급한 것은 즉시 황제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금문(禁門)의 자물쇠와 증명서를 맡아 관장하였다.

숙종이 언제 안녹산 군을 평정할 수 있을지 하문했다. 그가 답하기를 "안녹

며, 아내를 맞아들어 집안을 이루고 봉록과 작위를 받게 해 숙인이 되게 하고 싶소."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반드시 신으로 하여금 그 뜻을 저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황제는 범양 노씨의 딸을 아내로 삼도록 하였다. 장안 동쪽에 집을 사하고 며칠은 집에서 며칠은 봉래원에서 머물도록 하였다.

재상 원제가 정치를 전횡하면서 이필을 모함했다. "이필이 항상 친구들과 잔치를 하였고 환관 어조은과는 더불어 친하였으므로 마땅히 그의 역모를 알았을 것입니다" 황제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강서 판관으로 보냈다. 덕종 시대에도 원로의 역할을 수행했다. 덕종이 태자 이숙 대신 조카인 서왕 이의를 총애해 태자를 교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 "대체 누가 아들보다 조카를 인정한다 말시오"라며 부인했다. 그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폐하의 자손들이 천하를 호령하려면 반드시 적통(嫡統)을 지켜야 합니다"고 주장해 태자 폐위 건을 없애도록 하였다. 그는 4대에 걸친 원로대신으로 지위가 재상에 이르렀다. 도가의 가르침에 도통했으며 후일 엄현후에 봉해졌다.



임시병동 '아수라장' 인도네시아의 유명 휴양지인 롬복 섬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20일(현지시간) 환자와 가족들이 야외 임시 병동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강진이 이어지고 있는 롬복 섬에서 19일 밤 또다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롬복서 또 규모 6.9 지진

휴가철 한국인 관광객 등 여행객 피해 우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휴양지인 롬복 섬에서 현지시간으로 19일 밤 또다시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20일 밝혔다. 롬복은 한국

관광객에게도 친숙한 휴양지 발리도와 가까운 곳이라서 여름 휴가철을 맞은 여행객의 피해가 우려된다. USGS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롬복 동쪽 벨란팅이라는 지역에서 약 5km 떨어진 곳이며, 진원의 깊이는 20.3km다. USGS는 지진 발생 직후 규모를 7.2로, 진원 깊이를 1km로 발표했다가 곧바로 6.9, 20.3km로 수정했다.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고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는 밝혔다. 롬복에서는 앞서 현지시간으로 19일 오전에도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다.

또 지난 5일 규모 7.0의 강진이 롬복을 강타한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5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48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 분화가 빈번하다. 특히 올 여름 들어 롬복 일대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상가원룸 매매 [신축전문]

□ 월곡시장 2분 (일신아파트 옆)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 (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 5백 월40만 (용 2천)

▶ 시세 1억3천
매가 5천900만

① 상무지구 6층상가 (23평) 보500만 월40만 ▶ 매가6천400만 (용 2천만)

② 산정동 (1층코너 상가)원룸 15개 (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만

③ 월곡동시장 2분 ▶ 매가 8억4천만 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의 550만)

④ 전대정동 2분 (원룸18개, 안집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 (용3억5천만가능)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기초부터 ~ 실전 전문)
★ 7월 개강 선착순 모집 ★

(주)대신경매

1) 남구 송하동 (근린시설)
토 138평 건물 491평
▶ 감평가 12억1천 → 최저가 8억5천

2) 서구 금호동 (1층 상가)
토 69평 137평
▶ 감평가 13억 → 최저가 7억3천

3) 광산구 소촌동 (다가구 원룸)
토 80평 건 144평
▶ 감평가 3억5천5백 → 최저가 2억4천8백

4) 북구 오치동 (4층 상가건물)
토 199평 건 370평 (1층 대형 마트)
▶ 감평가 17억2천 → 최저가 12억

토지 기타 추천

1) 광산구 도천동 (1,373평)
유통단지 입구 교차로 코너
6차선 대로 접 (하남 공단도로)
▶ 감평가 35억 → 최저가 35억

2) 진곡산단 공장용지 (1,922평)
▶ 감평가 25억 → 최저가 25억

3) 서구 덕흥동 (1,210평)
▶ 감평가 12억8천 → 최저가 12억8천

4) 광산구 지족동 (98평)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1억1천만

5) 나주 금천면 과수원 (2,575평)
▶ 감평가 5억5천 → 최저가 3억8천

★ 평택 투자자 모집★
송탄역 1분 초역세권 투자자 모집
연 20% 보장

근린상가/빌라/숙박시설

A.P.T / 주택	공장 / 기타
① 북구 유곡 (숙박시설) (토103평 건288평) ▶ 감평가 9억3천 → 최저가 9억3천	⑥ 광산구 월천동 (공장) 토1989평 건2,400평 ▶ 감평가 68억 → 최저 47억
② 서구 양동 (숙박시설) (토138평 건272평) ▶ 감평가 2억9천 → 최저가 7억2천	⑦ 광산구 오산동 (공장) 토506평 건528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9억9천
③ 서구 치명동 (3층상가) 103평 ▶ 감평가 8억 → 최저가 5억6천	⑧ 광산구 도천동 (공장) 토510평 건237평 ▶ 감평가 12억 → 최저가 8억4천
④ 북구 용봉동 (2층상가) 117평 ▶ 감평가 8억1천 → 최저가 5억7천	⑨ 전남 장성 북 (공장) 토510평 건176평 ▶ 감평가 3억 → 최저가 1억9천
⑤ 북구 영남동 (근린상가) ▶ 감평가 4억4천만 → 최저가 4억4천	⑩ 남구 백운동 (빌라) 토66평 건145평 ▶ 감평가 3억9천만 → 최저가 2억

010-7384-7800 010-6670-9800

직원구함 (경매, 직언, 컨설팅, 부동산관련 함께하실분 구함)